

# 조선시대 간경도감의 역경사업

김 무 봉

(동국대학교 국문과 교수)

## 목 차

- |                 |                     |
|-----------------|---------------------|
| 1. 서 론          | 3. 간경도감 간행 국역 불서 고찰 |
| 2. 간경도감의 체제와 운영 | 4. 결 론              |

## 1. 서 론

불교가 이땅에 유입된 이래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을 우리말로 읽고, 이를 문자<sup>1)</sup>로 옮기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 같다. 불교 전래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譯經의 여러 결과물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중 중세 이전의 것은 符號나 借字 구결이 현토되어 있는 경전류, 이른바 구결불경들과 한문 원문에 정음으로 토를 달고 이를 우리말로 옮긴 언해불경들의<sup>2)</sup> 모습으로 오늘에 전해진다.

전자, 곧 구결이 달린 불경들은 여대와 선초에 집중적으로 조성

1) 여기서의 문자는 구결자 등의 借字와 고유의 문자를 모두 포괄한다. 형태가 어떠한 전달 기호로서의 체계를 갖추었으면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

2) 필자는 구결이 현토된 불교경전과 15, 16세기에 정음으로 번역된 불교경전을 각각 '구결불경', '언해불경'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서지학에 입각한 명칭은 아니다. 논의의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

되었는데,<sup>3)</sup> 당시에는 고유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전들은, 경 한문 문장의 구두에 해당하는 곳 좌우에 구결을 현토한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 경전들로 하여 당시의 우리 불교와 국어 연구가 상당 부분 가능케 되었고, 일부 연구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후자, 불경언해류는 국문자 창제 이후인 15, 16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국역 경전류를 이른다.<sup>4)</sup> 이 경전들로 해서 우리는 한글 창제 직후인 15, 16세기 한글 경전 간행 사업과 당시 불교의 특성 등을 비교적 소상히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세 시기 한국어 연구에도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조선조 7대 임금 세조는 잠저시에는 물론이거니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불서<sup>5)</sup>의 간행과 보급에 남다른 정성을 쏟았다. 대군의 신분이었던 1447년(세종 29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불서인 <석보상절>을 지어 부왕 세종에게 찬진한 것을 시작으로, 재위기간 내내 불서의 간행과 국역 사업을 주도했다. 그는 즉위 후 정국이 안정되자 본격적으로 국역 불서 간행 사업에 착수했다. 왕 5년에는 부왕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에 자신의 <석보상절>을 합편하여 <월인석보>(1459년간)를 편찬함으로써 한글 경전 간행의 시

---

3) 구결이 현토된 경전이 훈민정음 창제 이전인 여대와 선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현전하는 조선시대 경전 중에도 구결이 현토된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국문자 창제 이전의 구결 경전에 있으므로, 이 논의에서 말하는 구결불경은 주로 여대와 선초에 조성된 구결이 현토된 경전을 이른다.

4) 언해 경전이 간행된 시기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다. 그러나 주로 간행된 시기는 15, 16세기이고, 17세기 이후에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17세기 이후에는 전시대에 간행된 경전을 중간 또는 복각하거나 번역 양식을 바꾸어서 간행한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5) 15세기에 간행된 정음 문헌 중 상당수는 불교 관련 문헌이다. 총 40여 건 중 29건이나 된다. 그런데 29건 중에는 경전이 아닌 문헌도 있어서 그 모두를 언해 불경 또는 국역 불경이라고 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불경과 기타 불교관련 서적을 통틀어 ‘불서’라 부르기로 한다.

대를 열었다. 왕 7년(1461년) 6월에는 경전 간행을 위해 한시적인 국가기관인 간경도감을 두어 경전간행 사업을 전담케 했다.<sup>6)</sup> 간경도감은 1471년(성종 2년) 폐지<sup>7)</sup>될 때까지 11년 동안 존속하면서 한문 경전 간행 30여 건<sup>8)</sup>, 국역 경전 간행 9건 등의 실적을 냈다. 특히 존속 기간 중 전반기에 해당하는 5년 동안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유교를 국시로 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열악한 출판 환경, 그리고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한 훈민정음으로 그토록 방대한 양의 저술을 냈다는 사실은 실로 이적이 가깝다. 이로써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한국 불교와 우리말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문화 유산 상당수를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세조는 간경도감 설치 이전에 이미 <법화경>, <대장경> 등의 경전을 간행했다는 기록이 있다.<sup>9)</sup>

이러한 일련의 경전 간행 사업은 국왕의 절대적인 의지와 지원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업이 최고 통치자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고려시대 이래 면면이 이어져 온 한문 경전에 대한 우리말로의 읽기, 그리고 구결불경의 간행 등 선현들의 국역 경전 간행에 대한 열망과 역량이 결집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간경도감의 운영도 고려조에 있었던 국조 이래의 성업인 팔만장경의 간행 등 刊經에 대한 역량 축적의 결과였으리라 본다. 실제 간경도감은 고려조의 대장도감이나 교장도감의 체제를 부분적으로 본땀다.

---

6) ‘初設刊經都監 置都提調提調使副使判官’, 세조 7년(1461) 6월 17일 乙酉條(세조실록 24권 25장).

7) ‘命罷刊經都監’, 성종 2년(1471) 12월 5일 壬申條(성종실록 13권 18장).

8) 문헌의 수를 件數로 표시하는 것은 당시의 관례를 따른 것이다. 한 문헌에 해당하는 책권의 수가 여럿인 경우가 많아서 計數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본다. 金守濫의 발문(1472) 學祖의 발문(1495) 참조.

9) 강신항(1987: 250-255) 참조.

이 발표는 여기에 착안하여 간경도감의 체제, 그리고 간행 불서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간경도감의 역경 사업 전반을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9건에 달하는 한글 경전 고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간경도감에서는 불서 인행 외에 왕실과 관계되는 사찰의 불사와 법회, 불교의례 등을 주관하기도 하고, 중국으로부터 서적 수입의 일에도 관여했으나 본고의 논지와는 거리가 있어서 논외로 한다. 또한 성종조에는 불교계를 지휘 통솔하는 기구로서의 기능도 하고, 대납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논외로 한다.

## 2. 간경도감의 체제와 운영

간경도감은 경전 간행에 관한 한 고려시대의 大藏都監이나 敎藏都監에서 그 본을 찾은 듯 하다. 간경도감 간행의 한문 불서 중 상당수는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이 간행한 속장경을 重修한 것이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한문 불서 중 속장경을 再雕한 것은 간기에 ‘중수’라고 하여 初刊한 불서에 적힌 ‘雕造’와 구분하였다.

그 외 관직 구성과 지방에 分司를 둔 점도 비슷하다. 관직 구성은 議政府의 右議政급을 도제조로 하고, 판서 등이 제조가 되는 등 조정의 중신들이 겸직할 경우가 많았다. 한 직책에 복수로 임명하기도 했다. 설치 당시에는 도제조, 제조, 사, 부사, 판관 등의 직책을 둔 것으로 기록에 전하나<sup>10)</sup> 雕造官의 列銜에 의하면 <능엄경언해>부터 제조 밑에 부제조라는 직책이 더해졌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시행되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현전 언해 불서 중 초간에 해당하면서 조조관의 열함이 온전

---

10) 간경도감 설치 당시의 직책에 대해서는 주6) 참조.

히 전하는 문헌을 중심으로 참여인사의 수를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도제조 이외의 인물에 대해서는 명수만 적는다. 대체로 한 문건당 20명 내외의 인사가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보직을 가진 인물 외에 판각과 교감 등 기타의 刊役に 동원된 匠人, 役夫의 수도 170명<sup>11)</sup>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케 한다.

[표] 간경도감 간행 언해 불서 참여 인원

서명 \ 직책	도제조	제조	부제조	사	부사	판관	계
능엄경언해 (1462년간)	3 (계양군, 윤사로, 황수신)	7	5	4	2	3	24
법화경언해 (1463년간)	2 (윤사로, 황수신)	8	2	5	2	0	19
금강경언해 (1464년간)	1 (황수신)	8	2	3	4	2	20
반야심경언해 (1464년간)	1 (황수신)	8	2	3	4	2	20
원각경언해 (1465년간)	1 (황수신)	9	1	5	3	1	2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경도감의 불서 간행에는 계양군 증, 윤사로, 황수신 등이 도제조로 활동했고, 그 외에 한계희, 노사신, 박원형, 조석문, 강희맹, 윤자운, 홍응, 성임, 김수온 등이 참

11) ‘一切停罷而獨不罷刊經 役夫匠百有七十餘人’, 성종 2년(1471) 1월 21일 甲午條 (성종실록 9권 12장).

여했다. 종친으로는 효령대군, 승려로는 신미, 수미, 학열, 해초, 학조 등이 동참했다.

간경도감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상도의 상주목, 안동부, 진주부, 전라도의 남원부, 전주부, 황해도의 개성부에 분사를 두었다. 본사의 위치<sup>12)</sup>에 대해서는 기록상으로 전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몇 실록의 기사로 미루어 궁내는 아니고<sup>13)</sup> 경복궁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화재를 염려하여 간경도감 부근의 민가 23호를 철거시켰다는 기록<sup>14)</sup>과 경복궁내 사옹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간경도감의 일부가 소실되었다는 기록<sup>15)</sup>이 그것이다.

간경도감은 설립 초기와 세조 당대에는 의욕적으로 간경사업을 펼쳤으나 세조 사후 예종대를 거치면서 점차 쇠퇴 일로를 걸었다. 세조 이래 계속되던 儒臣들의 반대가 예조·성종대에는 더욱 심해졌다. 성종 즉위 초 司諫院 大司諫인 金壽寧 등이 극렬하게 혁파를 상소하였고<sup>16)</sup>, 급기야 성종 2년(1471)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간경도감 간행의 한문 불서들은 戒律 관련 章疏들과 禪書들이 주류를 이룬다. 간기 부분이 낙장인 책이 많아서 확인이 쉽지 않지만 대략 30건 정도가 현전한다. 이를 연대순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17)</sup>

---

12) 간경도감 본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강신항(1987), 박정숙(1996) 참조.

13) ‘上幸刊經都監’, 예종 1년(1469) 9월 1일 辛巳條(예종실록 7권 14장).

14) ‘刊經都監啓 火災可畏 請撤去傍近人家 命亦及二月撤去 凡二十三戶 給復賜米 悉如宮城傍近居人例’. 세조 8년(1462) 1월 30일 乙丑條(세조실록 27권 13장).

15) ‘夜司饗院東廊炭庫失火 延燒本院與刊經都監’, 세조 12년(1466) 정해년 12월 14일 丙午條(세조실록 44권 49장).

16) ‘今刊經都監 本是權置衙門 事已便罷者也’, 성종 1년(1470) 4월 14일 壬戌條(성종실록 4권 22장).

17) 목록의 작성에는 김두중(1974), 강신항(1987),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1990), 박정숙(1996) 등을 참고하였다.

[표] 간경도감 간행 한문 불서 일람표

순서	서명	권수	저자	간행연도	간행지 및 기타
1	금강반야경소개현초	6	공철	1461	본 사(중수)
2	대반열반경의기원지초	14	공공	1461	본 사(중수)
3	대승아비달마잡집논소	16	현범	1461-2	낙질본(중수)
4	정명경집해관중소	4	도액	1461-2	낙질본(중수)
5	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	1	사효	?	낙질본
6	대반열반경소	20	법보	1461-2	낙질본(중수)
7	개사분울중기의경초	20	행만	?	낙질본
8	수능엄경의소주경	20	자선	?	낙질본
9	화엄경론	100	영변	?	낙질본
10	사분울상집기	14	등연	1461-3	상주·안동분사 (조조)
11	능엄경계환해산보기	10	계환	1461	본 사(중수)
12	대승기신론필초기	6	자선	1462	전주분사(조조)
13	대방광불화엄경합론	120	이통현	1462	전주분사(조조)
14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의석 연밀초	10	각원	1462	본 사(중수)
15	유가론소	40	지주	1462	안동분사(조조)
16	능엄경해의	30	합휘	1462	본 사(조조)
17	오삼연약신학비용	3	응지	1462	본 사(중수)
18	진실주집	3	묘행	1462	본 사(조조)
19	지장보살본원경	1	실차난타	1462	본 사(중수)
20	묘법연화경찬술	2	혜정	1463	낙질본(중수)
21	구사론송소초	8	상진	1463	진주·상주분사 (조조)
22	노산집	10	혜원	1463	본 사(중수)
23	보리달마4행론	2	달마	1464	남원분사(중수)
24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3	종밀주해	1464	본 사(중수)
25	선문삼가염송집	6	혜심	1464	본 사(중수)
26	자애화상광록	2	?	1466	본 사(중수)
27	무주묘법연화경	7	구마라집	1467	본 사
28	원중문류집해	22	의천	1468	개성분사(중수)
29	석문홍각법임간록	2	각범	1468	상주분사(중수)
30	금광명경문구소	3	지의	?	낙질본

위에 든 것 외에도 1986년 경주시 기림사의 복장유물 조사 때에 발굴된 경전 중 간경도감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필자가 직접 실사할 기회가 없어서 다 소개하지 못한다.

세조는 <월인석보> 편찬의 여세를 몰아 왕 7년(1461)에 금속활자인 乙亥字로 <능엄경언해> 10권, <아미타경언해> 1권을 印刊한 바 있다. 이 활자본들은 간경도감 설치 후 목판으로 재간되었다. 간경도감 간행 언해 불서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서	서명	권수	저자	간행연도	간행지
1	대불정수능엄경언해	10	반탈밀제역, 계환해	1462	본사
2	묘법연화경언해	7	구마라집역, 계환해, 일여집주	1463	본사
3	선종영가집언해	2	현각찬, 연정정원수정, 세조구결	1464	본사
4	불설아미타경언해	1	구마라집역, 지의주석, 세조역해	1464	본사
5	금강반야바라밀경언해	2	구마라집역, 혜능주해	1464	본사
6	반야바라밀다심경언해	1	현장역, 중회술	1464	본사
7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10	종밀소초, 세조구결	1465	본사
8	목우자수심결언해	1	지눌찬, 비현합결, 신미역	1467	본사
9	사범어언해	1	신미역	1467	본사

간혹 <몽산화상범어약록언해>를 간경도감본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표기법, 언해체제, 불교 용어의 한자음 주음 등을 종합해 보면 간경도감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sup>18)</sup> 이는 중간본 <몽산화상범어약록언해>가 간경도감본으로 보이는 <사범어언해>와 합철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일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경도감 간행 불전언해들은 대체로 대승

18) <몽산화상범어약록언해>의 간행연도와 원간본의 비정은 김무봉(1993) 참조.



불교 경전류이거나 선서류들이다. 한국불교 사상 형성의 주류를 이루어 온 경전이거나 강원지침의 선수행 지침서 역할을 해온 경전들이다. 한국불교 제종파의 소의경전 역할을 해온 불서들인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언해’라는 용어의 해석과 언해의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간경도감본 국역 불서들은 이후 간행된 여러 언해서들의 지침이 되어 ‘언해’라는 독특한 문체를 형성하였고, 새로 창제된 국문자로 한문 문장을 옮기는 독특한 보급양식을 만들었다.

‘언해’란 용어 및 ‘언해의 과정’에 대해서는 김영배·김무봉(1998)에서 상세한 논의를 하였으나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훈민정음 초기에 만들어진 국한혼용의 문헌들을 ‘정음 문헌’이라 하고, 그 중 번역의 과정을 거친 문헌들을 ‘언해’라고 하지만 형태서지학에 입각한 용어는 아니다. 학계에서는 이 용어들을 널리 쓰고 있는데, 적어도 15세기의 번역 문헌에 국한한다면 적확(的確)한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범주도 모호하다. 15세기에 간행된 문헌 중 서명에 ‘언해’를 명기한 문헌이 없을 뿐더러 제반 기록에도 그런 명칭은 없기 때문이다.

‘언해’는 ‘언문역해’, ‘언자역해’, ‘언서역해’의 줄임말로 한문 원전에 대한 국어 번역을 일러 그렇게 불러 왔다. 굳이 ‘언해’라고 한 것은 중국어에 대한 상대어로서 ‘언문’이라는 호칭에 내포된 상징성 때문으로 본다.<sup>19)</sup> ‘언해’라는 명칭이 기록이나 실록 등의 문헌에서 1510년대에 처음 보이는 것은 15세기에는 그 명칭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20)</sup> 그러던 것이 16세기 말의 <소

---

19) 외국어 학습서의 경우 같은 번역서라도 중국어 학습서에는 <노걸대언해>라고 하였으나, 몽고어나 청어인 경우에는 <몽어노걸대>, <청어노걸대>라 하여 구분했다.

20) ‘언해’란 말이 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1514년(중종9) 4월 丁未條의 ‘以諺解醫書一張 下政院曰’(중종실록 20권 23장)부터이다.

학언해(小學諺解)>(1588년)에서 처음으로 서명에 등장한 후 다른 문건에도 널리 쓰이면서 15세기 문헌에까지 소급되어 학계에서는 15세기 이래 갑오경장까지의 한문 원전에 대한 ‘국어역’ 전체를 일러 ‘언해’라고 이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15세기에든 한문 문헌에 대한 국어 번역은 ‘언해’였다. 다만 그 이름이 15세기 당시에는 쓰이지 않았을 뿐이다. ‘언해’는 훈민정음 창제 후 한문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기 위한 강렬한 욕구에서 창안된 독특한 번역 양식이요, 인출 양식인 셈이다.

간경도감본 언해 불전의 번역 방식은 대체로 경이나 경소에 정음으로 구결을 단 후 번역하는 이른바 대역의 방법을 취했다. 번역문의 한자에는 동국정운 한자음이 주음되어 있는데 당시 언어 정책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구결문의 정음 구결에 방점을 찍지 않아서 간경도감 설치 이전에 간행된 불서들과 구분하기도 하였다. 언해의 과정은 물론 교정도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전한다. 우선 언해의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능엄경언해> 10권의 어제발 4장 앞뒷면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능엄경언해>에 관한 것이지만 당시 불전 언해가 얼마나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上이 입겨출 드르샤 慧覺尊者의 마기와시늘 貞嬪韓氏 등이 唱準  
 호야늘 工曹參判臣韓繼禧 前尙州牧使臣金守溫은 翻譯호고 議政府  
 檢詳臣朴樾 護軍臣尹弼商 世子文學臣盧思愼 吏曹佐郎臣鄭孝常은  
 相考호고 永順君臣溥는 例一定호고 司贍寺臣曹變安 監察臣趙祉는  
 國韻 쓰고 慧覺尊子信眉 入選思智 學悅 學祖는 翻譯 正희은 後에  
 御覽호샤 一定커시늘 典言曹氏 豆大는 御前에 翻譯 넘스오니라  
 (<능엄경언해>10권 어제발4)

1. 한문에 구결을 단다. 세조
2. 구결이 현토된 문장을 확인한다. 혜각존자 신미
3. 구결이 현토된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교정한다. 정빈한씨 등
4. 정음으로 번역한다. 한계희, 김수온
5. 번역된 문장을 여럿이 서로 비교·고찰 한다. 박건, 윤필상, 노사신, 정효상
6. 예(例)를 정한다. 영순군 부
7. 동국정운음으로 한자음을 단다. 조변안, 조지
8. 잘못된 번역을 고친다. 신미, 사지, 학열, 학조
9. 번역을 확정한다. 세조
10. 소리내어 읽는다. 두대

이렇듯 언해본의 번역 과정은 매우 엄격했다. 번역이 끝난 후에도 출판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결과 간경도감본 언해 불전들은 이후 간행된 한글 문헌의 전범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양의 불서들을 짜임새 있게 간행하기 위해서는 구결 작성과 번역 등의 작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교정<sup>21)</sup>과정도 매우 엄격했다. 그러면서도 독자들을 위해 可讀性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간씩의 변개가 거듭되었다. 그러면 간경도감 설치 후 겨우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토록 방대한 양의 印刊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국가적으

---

21) 고서의 교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지금처럼 인쇄과정에서 원고와 대조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인출 후 잘못 되거나 빠진 곳을 고치는 일이다. 인출 후의 교정인 경우 붓으로 가획하거나 칼로 탈획을 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쓰이기도 하고, 잘못 된 글자를 오려내고 다시 쓰거나 새로 인쇄하여 붙이는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잘못 된 글자 옆에 새로 써넣는 경우도 있고 교정의 印記를 두기도 했다.

로 주요 사업이었다는 사실 외에 전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기에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본다. 여말 선초에 간행된 구결 불경과 간경도감본을 비교하면 한문이 현토된 구결과 정음 구결이 상당 부분 맥이 닿아 있다.<sup>22)</sup> 이는 신라 이래 계속되어 온 한문 경전에 대해 우리말로 읽으려는 노력이 정음 창제 후 결실을 본 것으로 생각한다. <능엄경언해>의 각권 권말에는 要解, 義海, 會解, 集註 네 부분으로 나뉜 音釋이 있는데 이 중 요해 부분은 13세기 말에 기입된 것으로 보이는 남권희 교수 소장 <구결 능엄경>의 음 부분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간경도감 간행의 국역 불서들은 불교 전래 이래 경전을 우리말로 읽으려는 노력이 국문자 창제로 해서 비로소 결실에 이른 것이고, 거기에 간경도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대규모 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 3. 간경도감 간행 국역 불서 고찰

간경도감 간행 국역 불서들은 그 언해 체제에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경 본문은 경의 적당한 곳을 끊어 단락을 나눈 후 큰 글자인 경 본문에 구결을 달아 구결문을 두었다. 본문에 대한 언해는 작은 글자 쌍행으로 이루어 졌다. 요해 등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 글자로 본문보다 한 줄 낮추어서 구결문을 만든 후 역시 언해문을 두었다. 구결문과 언해문 사이에는 ○표시를 하여 구분하였다. 협주가 있는 경우에는 양쪽에 흑어미 표시를 하였다. 모두 독자들의 읽기의 편의를 도모한 번역 양식으로 보인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2) 김영배(2002)에는 <구결 법화경>과 <법화경언해>에 대한 비교가 있어서 이 방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 1) 간경도감본 언해불서들은 모두 목판본이다.
- 2) 한자에는 동국정은 한자음이 주음되어 있는데, 한자는 큰 글자, 주음은 작은 글자로 하였다.
- 3) 한글로 된 구결에는 방점을 찍지 않았다. 이 점이 간경도감 이전에 간행된 문헌들과 다른 점이다. 구결은 모두 쌍행이다.
- 4) 언해문은 한글 작은 글자로 하였다.
- 5) 한자어 주음은 구결문에는 없고 언해문에만 하였다.
- 6) 협주의 시작과 끝에는 흑어미가 있다. 다만 <아미타경언해>, <목우자수심결언해>, <사범어언해>에는 없다.
- 7) 본문과 언해문 사이에 ○표를 하여 구분했다.

아래에 각 문헌의 성격과 언해 체제, 소장 및 영인 현황을 요약한다.

이는 김영배·김무봉(1998)을 토대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 1)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능엄경언해>는 중인도 스님 반랄밀제(般剌密帝)가 한역(漢譯, 705 A.D.)한 <대불정 여래밀인 수증요의 제보살만행 수릉엄경<sup>23)</sup>>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 송나라 계환(戒環)스님이 <수릉엄경요해(首楞嚴經要解)>(1127 A.D.)란 주해(注解)를 짓고, 세조가 구결을 달고 한계희(韓繼禧), 김수온(金守溫), 신미(信眉) 등이 정음으로 번역한 것이다. 활자본은 세조 6년(1461)에 교서관(校書館)에서, 목판본은 세조 7년(1462)에 간경도

---

23) 이 경은 갖은 이름이 길어서, 흔히 ‘대불정수릉엄경, 수릉엄경, 능엄경’ 등으로 줄여 부른다.

감에서 전10권 10책으로 간행하였다.

이 <능엄경>은 고려 중엽 보환(普幻)스님의 <능엄경환해산보기(楞嚴經環解刪補記)> 같은 주석서가 나오고, 조선조에 들어서에는 불교 강원의 필수과목으로 되는 등, 널리 읽힌 선종(禪宗)의 중요한 경전의 하나이다.

이 책의 번역은 일찍이 세종의 명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다가, 세조 6년 5월에 회암사(檜岩寺) 불사(佛事) 중에 석가 분신 사리(分身舍利)의 신이(神異)가 있어서, 세조가 이에 종교적 감동을 받아, 미루어 오던 번역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sup>24)</sup> 그리하여 같은 해 6월에 시작하여 8월에 탈고, 10월에 활자본으로 간행했으나,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잘못된 곳이 더러 있었다. 이를 교정하여 다음 해인 세조 7년에 목판으로 재 간행하여, 활자본과 목판본 두 가지 판본이 있게 된 것이다.

편찬 양식을 목판본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經)의 본문은 한자(漢字) 큰자에 정음 작은자로 구결을 달고, 문장이 분절(分節)된 곳에 ○표를 한 후 언해문을 쌍행(雙行) 작은자로 이었는데, 간혹 중간에 협주가 나오면 【 표로 시작하여 】 표로 끝나거나, 협주의 끝부분이 글의 분절 끝인 경우는 후자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줄을 바꾸어 한 글자 낮추어서 계환의 ‘요해’가 중간자로 씌었는데, 구결문과 언해는 본문과 같은 형식인데, 이렇게 한 단락이 끝나면 다시 경전 본문이 나오게 된다.

언해문의 한자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주음(注音)되어 있으나, 본문이나 ‘요해’의 한자에는 주음되지 않았으며, 구결에 방점

---

24)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활자본 권10 끝에 있는 세조의 어제발(御製跋)을 비롯하여 신미, 김수온, 한계희의 발문이 낙장된 상태로나마 있어서 알 수 있다.

은 찍지 않았다. 이와 같은 양식은 정음 창제 초기의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의 그것과 비교하면 정음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이면서, 원문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고안해 낸 형태라고 보고 있다(한영균 1993).

완질인 목판본 권1의 편차(編次)와 각권의 장수는 다음과 같다.

내용	장수
진수릉엄경전(進首楞嚴經箋) 계양군(桂陽君)	4장
조조관(雕造官) 열기(列記)	2장
수릉엄경요해서(首楞嚴經要解序) 급남(及南)	5장
능엄경 권 제1	111장(계122장)
능엄경 권 제2	126장
능엄경 권 제3	119장
능엄경 권 제4	134장
능엄경 권 제5	90장
능엄경 권 제6	115장
능엄경 권 제7	95장
능엄경 권 제8	142장
능엄경 권 제9	123장
능엄경 권 제10	97장

목판본인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의 서지는 다음과 같다.

책크기 : 36.1cm×23.4cm

내 제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一)

판심제 : 楞嚴經(卷一)

반 곱 : 22.6cm×19.4cm

판 식 : 4주 쌍변

판 심 : 흑구 상하 내향 흑어미

행 관 : 유계(有界) 9행 본문 큰자 17자, '요해' 중간자 16자, 언

해문 작은자 쌍행 16자[요해], 17자[본문]

권말제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一)

활자본은 다음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 권1 성암고서박물관 보물 제760호, 김병구(金秉九)님.
- 권2 서울대 규장각[고1730-53] 보물 제761호, 김병구님.
- 권3 동국대 도서관[귀213.19 능63.4 v.3] 보물 제948호.
- 권4 김병구님, 이양재(李亮載)님 보물 제973호.
- 권5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 [가람 귀294.337 Su725 v.5] 보물 제761호.
- 권5·6 일본 텐리(天理)대학 도서관[183, 夕85].
- 권6 최영란(崔英蘭)님 보물 제761호.
- 권7·8 동국대 도서관[귀213.19 능 63.4] 보물 제762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보물 제763호.
- 권7 연세대 도서관[귀625](84장), 이양재님 보물 제973호.
- 권9 고 김형규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권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권7·8·9·10은 보물 제763호로 지정됨.

간경도감본인 목판본의 소장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동국대 도서관 소장 10권 10책[귀213.19- 능63.2] 국보 제 212호.
2. 서울대 규장각 소장[고1730-53-1-10], 10권 10책 중 권2가 빠진 낙질본. 보물 제764호. 이밖에 날권으로 권8(동국대 도서관), 권2(서울대 규장각) 등이 전하며 또한 1472년, 1495년간의 복각본 10권 10책도 근래 알려졌으



나, 소장자는 밝히지 않았다(남권희1998).

영인본은 동국대 도서관 소장 목판본을 1959년 동국대에서 국판 1책(1면에 2장 4면씩)으로 축소 영인했고, 이를 저본으로 하여 1977년에 대제각에서 다시 4·6배판 1책으로 간행했다.

활자본의 영인은 다음과 같다.

- 권1 경북대 출판부 1977.
- 권2 경북대 출판부 1998.
- 권4 경북대 출판부 1998.
- 권1·10 원척 영인, 문화재관리국 1997.
- 권5·6 「朝鮮學報」 106호 1983년 일본 조선학회.
- 권7 「겨레문화」 1집 198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권8 「겨레문화」 2·3집 198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권9 「겨레문화」 4집 199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권10 「겨레문화」 5집 199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 <능엄경언해>는 최초의 불경 언해로 이후에 나온 언해본의 규범이 된 점에서 중요한 문헌이며, 특히 활자본은 서지학적으로도 귀중하다. 분량이 많으므로 어휘나 문법 자료 등이 풍부하여 국어사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문헌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 2) 법화경언해(法華經諺解)

<법화경언해>는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406 A.D.)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 송나라 계환(戒環)이 요해(要解)하고, 명나라 일여(一如)가 집주(集註)한 것을 저본으로

했다. 경의 본문과 ‘요해’에 세조가 구결을 달고 간경도감에서 번역하게 하여 세조 9년(천순7년 1463)에 목판본 7권 7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는 윤사로(尹師路)의 ‘진묘법연화경전(進妙法蓮華經箋)’이나 세조실록 권31(1463년 9월 2일조) ‘간경도감진신간법화경(刊經都監進新刊法華經)’이라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이 <묘법연화경>(줄여서 ‘법화경’으로 씀) 7권 28품은 대승경전 중, 대표적인 경전으로 전반 14품인 적문(迹門)에서는 응신불(應身佛)로서의 부처의 가르침을, 후반 14품 본문(本門)에서는 응신불의 본체인 구원(久遠)의 근본불을 설한 것으로, 일승(一乘)의 가르침은 가장 뛰어난 교법(教法)으로서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세간에 있는 빼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연꽃에 비유하여 <묘법연화경>이라고 했다.

<법화경언해>는 간경도감본에 앞서 번역되어, <석보상절>에도 편입되었으니, 중복되는 계송(偈頌)을 제외하고는 장행(長行) 산문의 본문이 거의 번역되어 <석보상절> 제13에서 제21까지에 실려 있다.<sup>25)</sup>

편찬 양식은 <능엄경언해>와는 달리 경전 본문 앞에 계환의 과문(科文)이 한 자 내려서 구결과 함께 실리고 그 언해가 있는 다음에 본문이 시작된다.

큰 글자의 본문에는 구결을 달았다. 단락 끝에 ○표를 한 후 일여의 ‘집주’를 작은자 쌍행으로 쓰고, 끝나면 다시 ○표를 둔 다음

---

25) <석보상절> 권14~18의 5권은 현전본이 없는 듯하나, 현전하는 <석보상절> 제13에 <법화경> 권1의 서품 제1, 방편품 제2가, <석보상절> 권19에 <법화경> 권6의 제 18~21품이, <석보상절> 권20에는 <법화경> 권6의 제22·23품과 권7의 제24품이, <석보상절> 권21에 <법화경> 권7의 제25~28품이 실려 있으므로, 미발굴의 <석보상절> 권14~18의 5권에는 <법화경> 제3~17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본문의 언해를 적었는데, 이 또한 작은자 쌍행이다. 이어 한 글자 낮추어 계환의 ‘요해’에 구결을 달고 중간자[中字]로서 하였으며, 그 끝에는 ○표를 하고 언해하였는데 이 역시 작은자 쌍행으로 하였다. 언해의 한자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주음하고 간혹 중간에 협주가 있으면 처음과 끝에 각각 어미(魚尾) 표시를 했다.

이 책의 권1의 편차와 각 권의 장수는 다음과 같다(동국대 영인본, 1960년 기준).

권차	내용	장수
권 1	진묘법연화경전(進妙法蓮華經箋)	5장
	조조관명 열기(列記)	2장
	신주법화경서(新註法華經序)	1~2장
	묘법연화경일여집주서(妙法蓮華經一如集註序)	3~5장
	묘법연화경 홍전서(弘傳序)	6~18장
	묘법연화경 요해서(要解序)	19~23장
	묘법연화경 권제1 (과문) 묘법연화경 서품제일(序品第一) 방편품제이(方便品第二)	1~16장 17~130장 131~249장 계 279장
권 2	비유품 제3 신해품 제4	계 266장
권3	약초유품 제5 수기품 제6 화성유품 제7	계 201장

권4	5백제자수기품 제8 수학무학인기품 제9 법사품 제10 견보탑품 제11 제바달다품 제12 지품 제13	계 201장	
권5	안락향품 제14 중지용출품 제15 여래수량품 제16 분별공덕품 제17	계 213장	
권6	수희공덕품 제18 법사공덕품 제19 상불경보살품 제20 여래신력품 제21 촉루품 제22 약왕보살본사품 제23	계 186장	
권7	묘원보살품 제24 관세음보살보문품 제25 다라니품 제26 묘장엄왕본사품 제27 보현보살권발품 제28	계 194장	총계 1540장

이 책의 서지를 동국대 도서관 소장 권1을 중심으로 보인다.

책크기 : 31.5cm×22.5cm

내 제 : 妙法蓮華經

판심제 : 法華經(卷一)  
반 곶 : 21.8cm×17.8cm  
판 식 : 4주 쌍변  
판 심 : 중후구 상하 내향 흑어미  
행 관 : 유계 9행, 본문 큰자 17자, 언해 쌍행 작은자 17자,  
요해는 중간자 16자, 언해 쌍행 작은자 16자.  
권말제 : 妙法蓮華經(卷第一)

이 책의 원간본 계통은 흔치 않아 낙질이나 영본으로 전하는데,  
근래 조사한 바에 따르면(이호권 1993) 다음과 같다.

#### 가) 원간본

1. 동국대 도서관 권1·6[귀213.14-법96ㅎ3].  
‘진묘법연화경전’의 연대기:天順 七年(1463)九月初二日  
都提調輪忠衛社同德佐翼功臣綏祿大夫鈴川府院君臣尹師路  
等上箋.
2. 서울대 규장각 권2(낙질본)·3·4·5·6·7[고1730-14B].
3.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 권7[고귀 294.333-B45e](낙장본)  
2·3·4[고귀294.333-B872 ma].
4.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 권4[고귀 294.333-B872m](낙장본).
5. 성암고서박물관 권2·3·4·7[3-296] 권5.

#### 나) 원간본의 복각본

1. 중종 18년(嘉靖 2년, 1523)판 김석하님.
2. 인종 원년(嘉靖 24년 1545)판 권3 나주 쌍계사본.
3. 명종 2년(嘉靖 26년 1547)판 권7 ‘나-2’의 중간(?).
4. 영조 40년(乾隆 29년 1764)판 권7 덕산 가야산본 서울대  
규장각[가람고 294.333 -B872ma-v.1-14].

5. 영조 44년(乾隆 33년 1768)판 권2 덕산 가야산본.

다) 개간본(改刊本) 법화경언해

이 책은 간경도감판 <묘법연화경언해>와 내제, 판심제가 같으면서도 그 체제가 전혀 다르다. 본문만 구결을 달고 언해했으며, 계환의 요해와 그에 대한 언해는 생략했다. 판식이나 표기법 등이 원간본과는 달라서 전혀 별개의 자료이다.

연산 6년(弘治 13년, 1500)판 권1·2는 국립중앙도서관[귀-391, 한--21-86], 권4는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간기: 弘治 十二年 庚申 九月日刊 同事林厚.

위의 원간본과 복각본을 모은 전질을 1960년 동국대학교에서 축소 영인 1책(총871면)으로 간행하였고, 이를 저본으로 1977년 대제각에서 재영인했다.

이 책의 표기법은 <능엄경언해>와 대체로 같으나 특기할 점은 ‘ㅅ’과 ‘ㅈ’의 혼기, 관형사형어미 ‘-’의 ‘ㅎ’이 쓰이지 않고 ‘ㄱ+각자병서’형으로, 한자어의 경우에는 ‘+한자어’ 또는 ‘ㄱ+한자어’로 적었으며, 관형사형어미 ‘-ㄱ’ 아래에 각자병서 ‘ㅃ’이 쓰인 점에서 유일하다.

3)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선종영가집언해>는 당(唐)나라 현각(玄覺, 665~713)스님의 <선종영가집>에 송나라 행정(行靖)이 주(注)를 붙이고 정원(淨源)이 과문(科文)을 수정한 것을 세조가 정음으로 구결을 달고,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와 효령대군(孝寧大君) 등이 번역한 것으로서 세조 10년(天順8, 1464) 1월에 간경도감에서 상하 2권 2책으로 간행한 목판본이다.

이 책은 선정(禪定)에 들 때에 주의해야 할 일과 수행 방법을 10단으로 나누어 설명한 선종(禪宗)의 중요한 문헌 중 하나이다. 편찬 양식은 같은 해,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아미타경언해>·<금강경언해>·<반야심경언해> 등과 대체로 일치한다. 정음으로 구결을 단 본문을 먼저 보이고, 그 단락을 나눈 첫머리에 ○표를 한 다음, 이어서 언해문은 작은자 쌍행으로 적고 이것이 끝나면 행(行)을 바꾸어서 한 글자 내려 과주(科注)를 두었는데, 여기에도 정음 구결이 있고, 그 단락 끝에는 ○표를 하고 그 뒤에 언해문이 이어지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한자(漢字)는 큰자, 과주의 한자는 중간자이고, 정음 구결과 언해문은 같은 크기의 글자를 썼다.

이 책의 편차(編次)는 다음과 같다.

#### 권상(上)

내용	장수
진전문(進箋文) 황수신(黃守身) 등	3장
서문 위정(魏精)	17장
본문	120장
제1문 모도지의(慕道志義)	
제2문 계교사의(戒憍奢意)	
제3문 정수삼업(淨修三業)	
제4문 사마타송(奢摩他頌)	
제5문 비바사나송(毗婆舍那頌)	
계140장	

권하(下)

제6문 우필차송(優畢叉頌)	149장	
제7문 삼승점차(三乘漸次)		
제8문 사리불이(事理不二)		
제9문 근우인서(勤友人書)		
제10문 발원문(發願文)		
涵虛堂讚頌併序	1~3장	계 159장
涵虛堂說義	4~10장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그 서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책크기 : 33cm×21cm

내 제 : 禪宗永嘉集(卷上)

관심제 : 永嘉集(卷上)

반 곱 : 21.7cm×16cm

판 식 : 4주 쌍변

판 심 : 대흑구 상하 내향 흑어미

행 관 : 유계(有界) 8행 19~20자, 과주(科注)와 그 언해는 18~19자

권말제 : 禪宗永嘉集(卷上)

현전하는 판본은 다음과 같다.

가) 원간본 : 권상 동국대 도서관 소장<sup>26)</sup>[귀219.7-현11스기].(? )

26) 이 책은 내제 다음의 역자(譯者)와 구결(口訣) 작성자 기명란(이를테면 ‘御定口訣, 慧覺尊者 信眉等 譯’)이 비어 있어서 초쇄(初刷)본이 아닌 듯 하다(김무봉 1995 참조).



후쇄본)

권하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 소장[귀294.388-Si65y].

가)-1. 원간본의 후쇄본 권하

연산 원년(弘治8, 1495), 권말에 학조(學祖)의 발문이 있음.  
동국대 도서관 소장[귀219.7-현11사72].

나) 복각본

1. 장수사(長水寺)본 : 중종 15년(正德15, 1520) 경남 장수사 간행. 이 판본이 최근까지 전해져서 후쇄본이 널리 퍼졌음.
2. 간행 연대 미상 해인사(海印寺) 소장본.

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원간본 권하(서울대 규장각 소장)을 1992년에, 권상(동국대 도서관 소장)을 1995년에 홍문각에서 각각 1책으로 영인했다. 1999년에는 상권 1책을 태학사에서 이유기·육효창의 역주와 함께 영인했다. 이에 앞서 1983년에 홍문각에서 장수사본을 저본으로 상하 권 1책으로 영인한 것도 있다.

이 책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해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아미타경언해·금강경언해·반야심경언해>보다 먼저 간행됐다고 보는 귀중한 문헌이며, 표기의 특징은 방점이 언해문에만 찍혔고 본문과 과주의 구결에는 찍히지 않았으며, 한자음은 언해문의 한자에만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주음(注音)되었다. 또한 한문의 구결표기에 ‘ㅎ’과 각자병서가 전혀 쓰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 문헌이 최초의 것이다. 언해문의 방점 표기에는 ‘어말(語末) 거평(去平) 교체’의 법칙이 가시화되어 이 책보다 앞선 문헌들의 표기와는 달라지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4) 불설아미타경언해(佛說阿彌陀經諺解)

<불설아미타경언해>는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漢譯)한 <불설아미타경>(弘始 4년, 402)에 세조가 구결을 달고 번역하였는데, 을해자본은 세조 7년(1461) 또는 그 이전 시기에 교서관(校書館)에서, 목판본은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용은, 부처가 기원정사(祇園精舍)에서 사리불(舍利弗) 등을 위하여 서방(西方)의 아미타불과 그 국토인 극락세계의 공덕과 장엄을 이르고, 아미타불의 명호(名號)를 일심불란으로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며, 육방(六方, 동·서·남·북·상·하)의 많은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의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고, 염불하는 중생을 부처가 호념(護念)함을 설한 것이다.

활자본의 편찬 양식은, 경(經)의 본문은 큰자에 정음 작은자로 구결을 달고, 언해는 줄을 바꾸어 한 글자 비우고 정음 중간자로 하고, 주(注)는 쌍행(雙行)으로 정음 작은자를 썼다. 본문의 구결에도 방점이 찍혔다. 정음 중간자는 그 시기로 보아 최초의 중활자(中活字)로 본다.

활자본에는 서(序)나 발문(跋文)이 없어서 간행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불교용어 ‘해탈(解脫)’의 ‘해’자 주음이 다음과 같이 시대에 따라 다른 점에 이 문헌의 간행 연대 추정의 근거를 삼고 있다(안병희 1980).

1447년 <석보상절>		행
1459년 <월인석보>		갱
1461년 <능엄경언해>	활자본	갱
1462년 <능엄경언해>	목판본	갱



등은 아래와 같다.

1. 쌍계사(雙溪寺)판 복각본, 명종13년(1558) 30장<sup>27)</sup> 1책 동국대 도서관 소장[귀213.16-아 39ㄱ사]. 활자본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2. 청도(淸道) 수암사(水巖寺)판 중간본, 인조 14년(1636).
3. 청도 수암사판 중간본, 인조 26년(1648).
4. 고성(固城) 운흥사(雲興寺)판 복각본, 숙종 28년(1702).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고294.3355-Am57b-]. 30장 1책.
5. 묘향산(妙香山) 보현사(普賢寺)간, 영조 2년(1727). 에다토시오(江田俊雄, 1934/1977 : 340)에 언급한 것이나, 현재 전래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임.
6. 팔공산(八公山) 동화사(桐華寺)간 복각본, 영조 29년(1753) 국립도서관 위창문고[위창고-1788-10], 동국대 도서관(4책)[213.16-아39ㄱㄷ3], 서울대 규장각(2책)[규고 294.355-B872a], 성암고서박물관, 일본 텐리(天理)대학 도서관 소장. 전래되는 <아미타경언해>본 중 제일 많은 책수이다. 51장 1책으로 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불설아미타경간행서’ 5장, ‘아미타경’ 29장 ‘왕랑반혼전’ 9장, 간기 1장 ‘임종정념결’(臨終正念訣)과 ‘부모효양문’(父母孝養文) 7장 등으로 장수가 늘어났다. 기 : 乾隆 18年(영조 29, 1753)11月日慶尙道大丘八公山桐華寺開刊 임종정념결의 간기 : 乾隆 6년(영조 17, 1841)辛酉季春日慶尙道新寧八公山修道寺開刊 (김영배 1997 참조).

---

27) 25장인 활자본과 차이가 나는 것은 활자본은 매면 9행인데 비해 목판본은 8행으로 4장 분량이 늘고, 간기·시주질 1장이 더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51년에 운홍사본을 저본으로 정양사에서 <관음경언해>와 합본으로 영인 간행했으며, 활자본은 한국서지학회의 「계간서지학보」 10호(1993)에 부록으로 영인했고, 이 활자본 영인을 다시 「아미타경의 국어학적연구」(1997, 범보신문사 간행) 부록에 쌍계사본과 동화사본(모두 동국대 도서관 소장)을 아울러 합본 영인했다.

이 책의 활자본은 한자 큰자·중간자·작은자의 활자와 정음 중간자·작은자가 섞여서 서지학상으로 중요한 문헌이며, 활자본의 표기에서는 정음 구결에도 방점이 찍혔고, ‘뵈’과 각자병서가 섞였으며, <월인석보>와는 달리 원문의 한자에 주음(注音)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 5) 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

<금강경언해>는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漢譯)한 <금강경> 본문과 육조(六祖)대사 혜능(慧能)의 해의(解義)에 세조가 구결을 달고 한계희가 번역하고 효령(孝寧)대군과 판교종사(判敎宗事) 해초(海超) 등이 교정을 보아서 세조 10년(天順 8년, 1464)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했다.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의 줄임이다.

<금강경>은 석가모니가 사위국(舍衛國)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서 수보리(須菩提) 등 제자를 위하여 경계(境界)의 공(空)함과 혜(慧)의 공(空)함과 보살공(菩薩空)을 밝힌 것으로서, 공·혜(空慧)로 체(體)를 삼고 일체법(一切法) 무아(無我)의 이치를 설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간행 사실과 그 동기는, 황수신의 ‘금강경심경전’(金剛經心經箋)과 해초 등의 발문, 그리고 권말의 ‘번역광전사실’(翻譯廣轉事實)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곧, 임오(壬午)년(1462) 9월9일, 세조의 꿈에 선대왕 세종이 보이고, 또 요절한 의경(懿敬)세자 도원군(桃源君)도 만났으며, 중궁(中宮)도 꿈에 세종이 이룩한 불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에 세조는 지극히 감격하여 돌아간 이의 명복을 빌고, 한편으로는 애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금강경>을 번역하게 되었다고 한다.

편찬 양식은, 경의 본문은 큰자로 행(行)의 첫머리부터 시작하고, 육조의 해의(解義)는 한 글자 내려서 중간자로 썼으며, 각각의 언해는 단락이 끝나면 ○표를 하고 쌍행(雙行)에 작은자로 이어 썼다. 앞부분의 ‘육조해서’(六祖解序)나 뒤의 후서(後序)·발문 등은 중간자이고, 정음 구결은 언해와 같은 작은자로 썼다. 언해의 한자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주음했으며, 어려운 한자어나 불교 용어에는 협주를 달았는데 처음과 끝부분에 각각 어미 표시를 하였으며, 협주가 언해의 단락 끝에 놓일 경우에는 끝 표시를 줄였다. 방점은 한문의 정음 구결에는 쓰이지 않고 언해문에만 사용되었다.

이 책의 간경도감판 원간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원간본 계통의 후쇄본, 복각본 등이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원간본 체재를 잘 따르고 쉽게 얻어 볼 수 있는 선조 8년(1575) 전라도 안심사에서 간행된 복각본(동국대 도서관 소장)에 대한 서지를 알아본다.

책크기 : 28.5cm×19cm

내 제 : 金剛般若波羅密經

관심제 : 金剛經

반 곽 : 20.5cm×15cm

판 식 : 4주 쌍변

판 심 : 대흑구 상하 내향 흑어미

행 관 : 유계(有界) 8행, 본문이나 언해 모두 19~20자.

권말제 : 金剛般若波羅密經

현재 알려져 있는 판본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간본 계통

1. 연산조본(연산 원년 홍치 8년 1495) : 원간본 계통의 후쇄본으로 단권(單卷)인데 임형택(林煒澤)님 소장.
2. 연산조본 계통(간년 미상) 권하(卷下) 1책, 서울대 규장각 일서문고 소장[고 294.332-B872ba-] 보물 제771호

#### 나. 복각본

1. 안심사(安心寺)본(선조 8년 萬曆 3년 1575) : 복각본을 보수(補修)한 것으로 1933년 간행된 1권 2책. 이 책은 고 한용운(韓龍雲)님에 의해 훼손된 판목을 더러는 새로 판각하고 더러는 기워서 간행하였는데, 마멸되거나 탈획(脫劃)된 곳이 적지 않다. 후술할 동악어문학회 영인본에는 오자(誤字)나 탈획자 등을 바로잡은 ‘교정일람표’가 첨부되어 있다. 동국대 도서관(2본)[213.13-금11ㄷ3], [213.13-금11ㅎ3]과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1본)[가람고 294.332-B872g], 그리고 또 다른 규장각(1본) [고1730-44] 등이 있다.

간기: 萬曆三年乙亥全羅道高山雲梯縣大雄山報恩慈福安心廣濟院重刊留鎖.

#### 다. 석판본

1. 원간본 계통(간년 미상, 1920년경) 권상 1책, 동국대 도서관 소장[213.13-금11ㅎ].

영인본은 1977년 대제각에서 ‘나-1’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을 영인 간행, 1992년 홍문각에서 권 상(석판본) 권 하(일사문고본)을 묶어 1책으로 영인했으며, 동악어문학회에서는 1993년에 원간본의 체재를 추정 재구(‘금강경심경전, 금강경서’ ‘제一分~제十四分’은 동국대 석판본을, ‘제十五分~제三十二分, 금강경후서’는 서울대 일사문고본을, ‘금강경발, 번역광전사실’은 안심사본(동국대 도서관)을 저본으로 주해하고 축소 영인하였다.

이 책도 국어사 자료로서 정음 창제 초기 표기법의 변천을 살펴는 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곧 ‘뵐’은 전혀 쓰이지 않았고, ‘ㅎ’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위해서만 썼으며, 사잇소리나 어미 ‘-’에도 전혀 쓰인 바 없는데, 이는 구결문이나 언해문 모두 같다. 어미 ‘-’은 뒤따르는 음절의 초성이 전청(全淸)자일 때는 ‘ㄹ+각자병서’로, 불청불탁(不淸不濁)자이거나 병서 또는 한자 표기일 때는 ‘ㄹ’로만 적었다.

## 6) 반야심경언해(般若心經諺解)

<반야바라밀다심경언해(般若波羅蜜多心經諺解, 줄여서 ‘반야심경’ 또는 ‘심경’)>는 당나라 현장(玄奘)법사의 한역(漢譯)(649, A.D.)이다. 여기에 현수(賢首)대사가 약소(略疏)를 붙여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702 A.D.)를 짓고, 송나라 중희(仲希)가 주해를 더하여 <반야심경소현정기(般若心經疏顯正記)>(1044 A.D.)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 중희의 주해에 세조가 정음으로 구결을 달고, 효령(孝寧)대군과 한계희(韓繼禧) 등에 명하여 번역, 세조 10년(1464)에 목판본 1책으로 간경도감에서 간행했다.

이런 사실은, 이 책과 <금강경언해> 첫머리에 있는 간경도감도제조(都提調) 황수신(黃守身)의 ‘진금강경심경전’(進金剛經心經



箋)과 한계회의 발문으로 알 수 있다.

이 ‘심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의 하나로, 전문 260자의 짧은 것이나, 대반야경(大般若經) 600권의 정수(精髓)로 그 기본사상을 잘 요약한 것이며,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則是色)’과 같은 구절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져 있다.

간행 동기는 한계회의 발문에 “이 경은 승려들이 평소에 늘 익히는 것이기에 주상께서 특별히 번역하게 하셨으니, 대저 아침 저녁으로 (승려들이) 외우면서도 외워야 하는 까닭을 모름을 민망히 여기심이니, 이는 곧 석가여래께서 이 중생들이 종일토록 ‘상(相)’에 노닐면서도 그 ‘상’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을 애석히 여기심이다.”고 밝혀 놓았다.

편찬 약식은, 본문은 큰자, 소(疏)는 중간자, 중회의 주해는 본문이나 소(疏)에 이어서 쌍행 작은자로 썼다. 본문은 행(行)의 첫머리부터 쓰고, 소는 한 글자 내려 썼는데, 언해는 각각 ○표를 하고 쌍행 작은자로 써 내려 갔다.

이 책의 편차는 다음과 같다.

내용	장수	
진금강경심경전	3장	
조조관명 열기	2장	
반야심경현정기 병서	1~14장	
반야바라밀다심경	15~67장	
심경발	2장	총 74장 1책

원간본의 서지를 자재암(自在庵)본에 따라 적는다.

책크기 : 28cm×19cm

내 제 : 반야심경소현정기(般若心經疏顯正記)

판심제 : 심경(心經)

반 곱 : 21.8cm×15.8cm

판 식 : 4주 쌍변

판 심 : 상하 흑구 내향 흑어미

행 관 : 유계, 본문 8행 19자, 소는 18자, 주해는 작은자 쌍행 18자, 언해 작은자 쌍행 18·19자.

원간본 세조 10년(1464)판은 현재 두 책이 전하는데,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본(69장 1책[일사고 294.332-B872ba-])과 근래 알려진 동두천시 자재암본(74장 1책)이다. 후자는 전자보다 ‘금강경심경전’(3장)과 ‘조조관 열함’(2장)이 더 많다. 이밖에 원간본의 후쇄본(弘治 8년 1495)이 고 최범술(崔凡述)님 소장이었다고 하나, 현 소장처는 미상이다.

또한 복각본으로 심원사(深源寺)판 (명종 8년, 1553년, 70장 1책으로 학조의 발문이 있음)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고 1730-44], 무량사(無量寺)판 (명종 20년, 1565, 68장 1책으로 간기 1장이 있음)은 고 조명기(趙明基)님 소장이었는데, 현재는 (?)모미술관 소장이라 하나 분명치 않다.

일사(一簣)본은 1973년 일지사에서, 자재암본은 1995년 동악어문학회에서, 홍치판은 1972년 불서보급사에서 각각 영인되었다.

이 책의 표기법 중 언해문의 경우에 각자병서나 방점은 그대로 쓰이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사잇소리 ‘ㅎ’자를 선행 체언의 받침 ‘ㄴ’에 합쳐서 ‘ ’로 적은 예가 있으나, 구결문에는 각자병서나 방점, 또는 ‘ㅎ’이 어떤 경우에도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 7)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

<원각경언해>는 당나라 불타다라(佛陀多羅, 현장법사) 번역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sup>28)</sup>에 대하여 역시 당나라의 종밀(宗密, 780~841)이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鈔)>를 지은바, 이를 저본으로 하여 세조가 구결을 달고 신미(信眉), 효령대군, 한계희 등이 정음으로 번역하여 세조 11년(1465)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10권 10책의 목판본이다.

이러한 사실은 권두의 내제 다음에 ‘御定口訣/慧覺尊者臣僧信眉孝寧大君臣補仁順府尹臣韓繼禧等譯’이란 기록과 황수신(黃守身)의 진원각경전(進圓覺經箋) 및 간행에 참여한 조조관(雕造官)(황수신을 비롯한 박원형(朴元亨) 김수온(金守溫) 등)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이 연대기는 성화(成化) 원년(세조 11, 1465)으로 돼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석가여래 부처님과 12보살-문수·보현·보안·금강장·미륵·청정혜·위덕자재·변음·정제업장·보각·원각·현선수 보살-과의 문답을 통해 대원각(大圓覺)의 묘리(妙理)와 그 관행(觀行)을 설한 것이다.

이 책의 편찬 양식은 정음 구결을 단 원각경 본문의 단락이 끝난 곳에 ○표를 하고 종밀의 주해(註解)를 썼는데, 이 주해 속의 협주는 작은자 쌍행으로 했으며, 번역문은 ○표를 하고 작은자 쌍행으로 써 나가는 식이다. 번역문 속의 협주는 시작과 끝을 각각 어미 모양으로 하여 흑구 내향 흑어미로 감쌌다.

이 책의 편차와 각권의 장수를 완질인 서울대 규장각본(중간본의 복각본)에 따라 적으면 다음과 같다.

---

28) 이를 줄여서 ‘대방광원각경, 원각수다라 요의경, 원각요의경, 원각경’ 등으로 부른다.

	내용	장수	
권1	圓覺經略鈔序	1장	
	圓覺經略疏序	1~4장	
	圓覺經序	15~84장	
권2	圓覺經 上一之一	1~118장	
권3	圓覺經 上一之二	1~97장	
권4	圓覺經 上一之二	98~192장	
권5	圓覺經 上二之一	1~53장	
	圓覺經 上二之二	1~86장	
권6	圓覺經 上二之二	87~173장	
	圓覺經 上二之三	1~47장	
권7	圓覺經 下一之一	1~68장	
	圓覺經 下一之二	1~57장	
권8	圓覺經 下二之一	1~65장	
	圓覺經 下二之二	1~47장	
권9	圓覺經 下三之一	1~135장	
권10	圓覺經 下三之二	1~103장	
	進圓覺經箋	1~3장	
	雕造官	1~2장	계 1148장

다음 서지 사항은 서울대 규장각본에 따른 것이다.

책크기 : 32cm×23.3cm

내 제 :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관심제 : 圓覺

반 곽 : 21.8cm×18cm

관 식 : 4주 쌍변

관 심 : 흑구 상하 내향 흑어미

행 관 : 유계 9행, 본문 큰자 17자, 주해와 번역문은 쌍행  
작은자 17자.

권말제 :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판본은 원간본 완질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낙장본이며, 복각본이나 중간본의 관계가 간단치가 않다. 여기서는 주로 근래 소장처 중심으로 조사한 한재영(1993)에 따랐다.

가) 원간본 세조 11년(1465)

1. 심약(心岳)본 권3지 1(1~4ㄱ 낙장), 권3지 2(103장 이하 낙장)의 영본(零本).
2. 일사(一簣)본 서울대 규장각. 권하 2지 1(권8의 끝장 낙장)[일사 고귀 294.33-W49bd].
3. 일사본 서울대 규장각[고귀 294.334-Si65d]. 권상 1지 2(4~192장) 권하 3지 1(4~135장)(?후쇄본).
4. 원간본의 후쇄본으로 서울대 규장각 소장[고귀1730-9A1/2]. 권1의 '서' (1-72가 낙장) 권상 1지 1(92장 이후 낙장), 권상 2지2(1~17장).

나) 원간본의 복각본<sup>29)</sup>

1. 서울대 규장각 소장 완질본[고1730-9].
2. 서울대 규장각 소장 권상[고1730-9B] 2지 3(1~47장), 권하 1지 1(1~65장 이하 낙장).
3.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 소장[고294.334-B872w-1465-v.1-10] 완질본.
4. 성암고서박물관 소장[3-266] 권상 2지 2(20~173장 낙질본), 권상 2지 3(1~47장).
5.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 소장[고294.33-w49b]. 권상 2지 2(43~173장).

---

29) 이의 구별은 내제 다음 두 줄에 나타나는 '御定口訣/慧覺尊者臣僧信眉孝寧大君 臣補仁順府尹臣韓繼禧等譯'이란 기록의 삭제 여부로 구별한 것인데, 이러한 삭제는 당시 간경도감의 폐쇄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안병희 1979).

6.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문고 소장. 권하 2지 2·3, 권하 3지 1·2.
7. 일본 田川孝三님 소장, 권상 2지 1, 2지 3.

다) 중간본 선조 8년(1575) 전라도 안심사(安心寺) 간행.

동국대 도서관[귀213.18-월11×11], 서울대 규장각[고1730-9C].  
간기 : 萬曆三年(1575)正月望前有日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板.  
이 책의 책판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보관되어 있어서 고 한용운  
님이 1932년에 약간 보수하여 후쇄해 낸 것이 널리 보급됐다.

이밖에 이 언해본과는 다른 정음 구결만 단 <원각경구결>이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영인은 안심사판을 저본으로 1977년 대제각에서 축소 영인하여  
모두 1책으로 합본 간행했고, 나-3의 가람문고본을 저본으로  
1995년에 흥문각에서 모두 5책으로 영인·간행했다.

이 책의 표기상 특징은, 한자음 표기를 제외한 구결문 및 번역  
문에서 정음 창제후 고유어 표기에 사용되었던 ㄱ, ㄷ, ㅃ 등 각  
자병서와 어두 마찰음 된소리 표기의 ‘ㅆ·ㅈ’도 전혀 쓰이지 않게  
되었으며, ‘ㅎ’도 폐지되어 관형사형 어미 ‘- ’도 ‘-ㄹ’로만 쓰이게  
되어 있다. 성조에서는 주격의 경우, 어말의 두 음절이 거성·거  
성에서 거성·평성으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난다.

#### 8) 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

<목우자수심결언해>는 고려 스님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智  
訥, 호 : 牧牛子, 1158~1210)이 지은 <수심결>을 신미(信眉)가 정  
음으로 번역하여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46장 1  
책의 목판본이다. 내제 다음에 ‘비현합 결(丕顯閣訣)/ 혜각존자역

(慧覺尊者譯)’이라 돼 있어서 비현합[동궁의 편당]에서 구결을 달고 신미가 번역한 사실과 간기가 붙어 있어서 간행 연대도 밝히 알 수 있다.

이 책은 선종(禪宗)뿐만 아니라 교종(敎宗)에서도 마음을 밝히는 중요한 저술로 전수되어 온 선(禪) 이론서로서, 마음을 닦는 요체(要諦)를 돈오문(頓悟門)과 점수문(漸修門)으로 나누고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점수문의 요점이라 설명했다.

편찬 양식 중 본문에 정음 구결을 단 것은 다른 불경 언해와 같으나, 본문을 구절이나 대문 단위로 끊고 번역문은 한 글자 내려서 써나간 것이 보통이지만, 이 책에서는 아무런 제목 없이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 길이가 상당히 길다. 짧은 것은 8행이 한 번(6면ㄴ7행~7면ㄴ5행), 그 밖에는 모두 2면 이상으로, 긴 것은 8면(38ㄴ~42ㄴ)이나 계속된 것도 있다. 본문에 이어 바로 ○표를 하고 작은자 쌍행의 번역문이 놓이는 식이다.

본문이 1장부터 46장 앞쪽 1행까지 끝나고 2~6행을 비우고 7행에 권말제가 있으며, 뒤쪽(46ㄴ)에 간기를 적고, 한 행 비운 다음 판하(板下)의 필사자를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 이 중 ‘안 혜’는 <불설아미타경언해> 목판본의 필사자이기도 하다.

保功將軍行忠左衛右部副司猛臣安惠書  
敦勇校尉行世子翊衛司右衛率臣柳暎書  
迪順副尉行龍驤衛前部副司猛臣朴耕書

서지는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본에 따른 것이다.

책크기 : 23cm×16.9cm(일사문고본), 27.5cm×16.7cm(김경숙 소장본)

내 제 : 牧牛子修心訣

관심제 : 修心訣

반 곽 : 18.8cm×13.4cm(일사문고본), 18.5cm×12.6cm

판 식 : 4주 쌍변

판 심 : 흑구 상하 내향 흑어미

행 관 : 유계 9행 17자, 번역문 작은자 쌍행 17자.

권말제 : 牧牛子修心訣

판본 중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원간본 :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고귀 294.315-J563ma]  
(보물 제770호), 권수에 <四法語> 합철[고  
294.315-J563ma-].

김경숙님 소장본(보물 제934호)은 <四法語>가  
<수심결> 뒤에 합철됨.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

간기 : 成化三年丁亥歲(세조 13, 1467)朝鮮國刊經  
都監奉教雕造

나) 원간본의 복각본

봉서사(鳳栖寺)본 연산 6년(1500)간, <四法語> 합철 1책 54  
장.

국립중앙도서관[귀-73, 한21-32]

서울대 규장각 소장[가람고귀 294.315-H118m-].

연세대 도서관 소장[귀 328].

간기 : 弘治十二年庚申冬有日慶尙道陝川地伽耶山鳳栖寺開板

영인은,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본을 저본으로 1973년 아세아문  
화사에서 간행했다.



이 책은 번역문에 동국정운식 한자음, 방점, ‘ㅎ·뵤’자가 사용되었으나, 극히 일부 어휘에 국한되어 있다. 어미 ‘-’은 ‘+전청음’ 표기로 ‘救호 사름, 마최 불디라’의 두 예가 보일 뿐이며, 대개는 ‘어미-ㄹ+전청음(ㄱ, ㄷ, ㅂ, ㅈ)’ 표기를 취하고 있고, 형식명사 ‘스’의 경우만은 ‘어미-ㄹ+ㅅ’로도 표기되어 대체로 ‘ㅎ’이 폐지된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합용병서는 15세기 다른 문헌과 다를 바 없이 씩였으나, 각자병서는 ‘ㅅ’만이 관형사어미 ‘-ㄹ’ 다음(길 널씨라)이나 형태소 내부(말씀)에서 간혹 씩었다.

#### 9) 사법어언해(四法語諺解)

<사법어언해>는 ‘완산정응선사 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순장주 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尚示衆)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尚法語)’의 법어 4편에 혜각존자 신미가 정음으로 구결을 달고 번역한 것이다.

이 <사법어>는 모두 9장 18면의 적은 분량이어서 이 책만으로 간행된 것은 없고, <목우자수심결언해>나 <몽산화상법어언해>에 합철되어 있고, 번역양식이나 표기는 <목우자수심결언해>와 거의 같아서 그 간행 연대도 같은 해인 세조 13년(1467)으로 추정하고 있다.

편찬 양식은 <목우자수심결언해>와 같은데, 다만 각 법어의 제목을 먼저 적고 행을 바꾸어 정음 구결을 단 본문을 놓고 본문이 끝나면 ○표를 하고 바로 이어서 번역문을 쌍행 작은 자로 써 나갔다.

서지는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본에 따랐다.

책크기 : 23cm×16.9cm

내 제 : 法語

관심제 : 法語

반 곶 : 18.8cm×13.4cm

관 식 : 4주 쌍변

관 심 : 흑구 상하 내향 흑어미

행 관 : 유계 9행 17자, 번역문 작은자 쌍행 17자

권말제 : 法語

서문·간기 없음.

현재 알려져 있는 판본은 다음과 같다.

가) 원간본 세조 13년(1467) 추정.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 소장 <목우자수심결언해> 권수에 합철된 것[고294.315-J563ma]. 김경숙님 소장 <목우자수심결언해> 끝에 합철된 것.

나) 중간본

1. 원간본의 복각본으로 봉서사(鳳栖寺)본. 연산 6년(1500)간, <목우자수심결언해>에 합철됨. 국립도서관[귀-73, 한 21-32],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고 294.315 -H118m]

2. 고운사(孤雲寺)본 중종 12년(1517) <몽산범어언해>에 합철됨. 고려대 도서관 화산문고 [귀 117], 성암고서박물관[3-342], 이병주님 소장.

<몽산범어언해>의 간기 : 正德十三年丁丑季夏有日忠清道連山土孤雲寺開板書刊希世

3. 중대사(中臺寺)본 중종 38년(1543)

연세대 도서관 소장[귀 605], 간기 다음에 <몽산화상범어약록>(1~71장)이 합철됨.

간기 : 嘉靖二十二年癸卯(1543)六月日全羅道鎮安地聖壽山中臺寺開板.

4. 송광사(松廣寺)본 선조 10년(1577) <몽산범어언해>에 <五法語><sup>30)</sup>로 합철됨. 여기의 한자음은 동국정운식이 아닌 현실 한자음임. 고려대 도서관[C3-A-69], 국립도서관, 동국대 도서관[귀214.2-덱69口入2],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 소장 [고 294.34-Si65be].

<몽산범어언해>의 간기 : 萬曆五年丁丑季夏日順天地曹溪山松廣寺留板.

영인은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본을 저본으로 <목우자수심결언해>에 합철, 1973년 아세아문화사에서 간행했다.

이 책의 특징과 표기는 <목우자수심결언해>와 대체로 같으나 사이시옷으로 ‘ㅎ’이 사용된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無몽ㅎ字종 6회 모두).

#### 4. 결 론

위에서 살핀 대로 간경도감은 500년 역사의 조선조 全期間 중 겨우 11년 동안만 존속했던 한시적인 국가 기관이었다. 왕조 존속 기간에 비한다면 須臾라고 할 만한 시간 동안 존속했지만 우리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유교를 치국의 주요 이념으로 했던 국가에서 양적으로 방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불교 문화재를 국가 기관을 빌어 그토록 체계적으로 생산했다는 사실은 관련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

30) <四法語>에다가 <몽산범어> 권말에서 보제존자의 ‘시각오선인범어’를 옮겨서 <五法語>가 됐음.

우리 문자 창제 이후 마땅한 정착 방법과 보급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창제 관련자들에게 불경을 언해하여 보급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돌파구가 되었을 수 있다. 간경도감 설치 이전까지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불서 언해 사업이 이로써 안정된 환경 속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나아가 새로 창제된 국문자의 정착과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역 불서 간행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건 결과적으로는 구어와 문어가 달라서 이원적 언어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에게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하나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불전 언해라는 국역 불서가 제공하게 된 것이다.

간경도감은 절대 왕권의 지원과 보호 속에서 길이 남을 업적을 쌓은 반면, 점차 ‘간경’이라는 본래의 궤도를 이탈한 점과 세조라는 한 인물에 지나치게 의존한 점 때문에 세조 사후 폐지되기에 이르렀지만, 오늘날 전해지는 불서, 특히 국역 불서를 통해 우리는 그 업적이 우리나라 불교문화사의 큰 흐름을 잇는 중대한 사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경도감 이후의 국역 경전 간행사업은 자성대비를 비롯한 왕비들과 학조 등의 스님들에 의해 계속되었고, 그 이후에는 간경도감 간행 불전 언해들이 본보기가 되어 重刊(改版 포함)과 覆刻, 그리고 開板을 거듭했다. 다만 간행의 주체가 정부기관에서 개인이나 지방 사찰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간경도감이 불전 국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자의 정착, 중앙어의 보급, 출판 문화의 향상 등에 기여한 바 실로 크다.

## 참 고 문 헌

- 강신항(1957), 이조 초 불경언해 경위에 대하여, 국어연구 1호, 국어연구회.
- \_\_\_\_\_ (1987),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 김무봉(1993), 몽산화상범어약록언해의 국어사적 고찰, 동악어문론집 28집, 동악어문학회.
- \_\_\_\_\_ (1993),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본 해제, 국어국문학논문집 16집,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 \_\_\_\_\_ (2000ㄱ), 불교언어연구, 한국문학연구 22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 \_\_\_\_\_ (2000ㄴ), 장수경언해연구, 동악어문론집 36집, 동악어문학회.
- 김영배(1972), 석보상절 23·24 주해, 일조각.
- \_\_\_\_\_ (1990),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에 대하여, 서남춘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 \_\_\_\_\_ (1991), 불경언해와 중세국어, 불교문학연구입문 2, 동화출판사.
- \_\_\_\_\_ (1992), 선가귀감 언해본 해제, 동악어문론집 27집, 동악어문학회.
- \_\_\_\_\_ (2002), 조선초기의 역경, 2002대각사상연구원 정기학술세미나 발표요지.
- 김영배·김무봉(1998), 세종시대의 언해, 세종문화사대계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완진(1983), 한국어 문체의 발달, 한국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 남권희(1998), 자료소개, 국어사연구회 하계발표회 발표요지.
- 남풍현(1980), 구결과 토, 국어학 9, 국어학회.
- 박정숙(1996), 세조대 간경도감의 설치와 불전, 부대 사학 20, 부산대 사학과.
- 박종국(1984),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 안병희(1972), 임진란 직전 국어사자료에 관한 이삼문제, 「진단학

보」 33. 진단학회.

- \_\_\_\_\_ (1976), 구결과 한문훈독에 대하여, 진단학보 41, 진단학회.
- \_\_\_\_\_ (1979), 중세어의 한글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규장각 3, 서울대 도서관.
- \_\_\_\_\_ (1980), 아미타경언해 활자본에 대하여, 난정남광우박사 회갑 기념논총, 일조각.
- \_\_\_\_\_ (1983), 세조의 경서구결에 대하여, 규장각 7, 서울대 도서관.
- \_\_\_\_\_ (1985), 언해의 사적 고찰, 민족문화 11, 민족문화 추진회.
- \_\_\_\_\_ (1992), 국어사자료연구, 문학과지성사.
- 이근수(1979), 조선조의 어문정책, 홍익대학교 출판부.
- 이기문(1959), 16세기 국어의 연구, 문리논집 4, 고려대 문리과대학.
- \_\_\_\_\_ (1972), 국어사 개설(개정판), 탐출판사.
- 이능화(1918), 조선불교통사, 경희출판사 영인(1968).
- 이동림(1972), 훈민정음과 동국정운, 문화비평 4권 1호, 아한학회.
- \_\_\_\_\_ (1980), 언문과 훈민정음의 관계, 연암 현평호박사 회갑기념 논총.
- 이봉춘(1978), 조선전기 불전언해와 그 사상에 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 이승재(1992), 고려시대의 이두, 태학사.
- \_\_\_\_\_ (1993), 여말선초의 구결자료,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 \_\_\_\_\_ (2001), 주본 화엄경 권 제22의 각필부호구결에 대하여, 구결연구 7집, 구결학회.
- 이유기·육효창(1999), 선종영가집언해(상)의 국어학적 연구, 태학사.
- 이호권(1993), 법화경언해,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정우영(1995), 15세기 국어 문헌 자료의 표기법 연구, 동국대 박사 논문.
- 정재영(2001), 성암 고서박물관 소장 진본화엄경 권 20에 대하여, 구결연구 제7집 구결학회.

- 천혜봉(1990),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동활자본 석보상절(제20권), 가나아트 3-4.
- \_\_\_\_\_ (1990), 한국전적인쇄사, 범우사.
- 최현배(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 한영균(1993), 능엄경언해,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자성사.
- 한재영(1993), 월각경언해,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자성사.
- 홍윤표(1984), 칠대만법 해제(영인본), 흥문각.
- \_\_\_\_\_ (1993), 국어사 문헌자료연구(근대편 1), 태학사.
- \_\_\_\_\_ (1994), 근대국어연구 ( I ), 태학사.
- \_\_\_\_\_ (1999), 불교언어연구 논평, 제19차 한국문학 학술회의 논평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 江田俊雄(1934), 朝鮮語譯佛典に就いて, (1977) 朝鮮佛教史の研究 收録 東京 國書刊行會.
- \_\_\_\_\_ (1936), 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 (1977)에 수록.
- \_\_\_\_\_ (1977), 朝鮮佛教史の研究 日本 東京 國書刊行會.
- 小倉進平(1940), 增訂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東京.
- 가산불교문화연구원(1998), 가산불교대사람.
- 동국대 중앙도서관(1981), 고서목록.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